

기고

장 경 준 나주소방서 대응구조과장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외부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추위를 느끼게 된다.

겨울철은 급격한 이상기온으로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등 화재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여름과 가을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추워지고 있는 요즘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전기장판·열선, 전기난로, 화목보일러 등 겨울철 3대 용품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작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사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장판 화재사고는 온

도를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래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기에 잠들기 전에는 전기장판의 온도조절장치를 적절한 온도로 조절해 주어야 한다.

전기장판 역시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좋고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보통 5시간 정도 사용했다면 1시간 정도 꺼놓는 것이 좋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면 장판 내부 열선이 꺾여 파손되거나 망가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므로 보관 시에는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동글게 말아 보관해야 한다.

또 온도조절장치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많으니 사용 시 온도 조절장치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전기난로는 대형 히터가 돌아가는 사무실에서는 히터의 온기가 미치지 않는 책상 아래 전기난로를 하나씩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난로를 신체와 너무 가까운 곳에 둘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최소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직사광선을 받는 등 주변 온도가 갑자기 높아질 위험이 없고 쓰러질 위험이 없는 바닥이 평평한 곳에 난로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불·커튼 등 불에 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전기난로에서 최대한 멀리하고 장기간 사용할 때에는 산소결핍과 공기 오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 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안전수칙도 있는

데 첫째는 안전한 전열 기구 사용으로 전열 기구는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안전 인증을 받을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 바라며, 둘째는 콘센트와 플러그 접속 확인이며 전선과 플러그에 결함이 있을 경우 불꽃이 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난방기구를 연결할 때는 콘센트와 플러그가 완전히 접속되도록 꼭 누른 다음 제품의 완전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셋째는 멀티탭에 너무 많은 플러그 연결은 NO!로 전열 기구는 가급적 콘센트 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전선이 과열로 녹아내려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며, 넷째는 전자단기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다.

누전차단기는 전기 화재를 일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은 누전차단기가 정상작동을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추운 겨울 난방기기로 따뜻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두 글자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일상 속 작은 안전 습관을 지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길 바란다.

社 說

소방관 재해보상 확대해야

최근 고위험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구조·구급 업무 중인 소방관 재해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고 징역형이어도 형량이 낮고 집행유예가 많아 사실상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역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돼 소방관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위에 소개한 것처럼 위급한 일이 없는데 사적 용도로 소방관을 호출해도 대개의 경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그리고 소방청과 공동으로 '고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이란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변협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소방관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소방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사소송 사례를 분석해 실태를 고찰했다. 또 공무원 재해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가이드 및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이 다양한 개선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방관에 대한 재해보상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긴박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소방관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대민봉사의 질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弔	조상할	조	弔民伐罪
民	백성	민	
伐	칠	벌	
罪	허물	죄	

▷ 뜻: 불쌍한 백성(百姓)은 돕고, 죄(罪)인은 백성(百姓)은 벌(罰)주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다른 계절과 달리 겨울은 특히나 건조하고 추위에 맞서기 위해 방한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여름과 가을보다 화재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도 가장 높아 화재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이다.

현재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기 위한 다방면의 홍보와 소방안전 교육으로 시민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압이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기이다.

초기진압에 있어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보다도 맞먹는다. 하지만 화재현장 주변에 소화기가 있더라도 소화기 사용법을 몰라 허둥대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소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 소화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하며, 소화기 내용연수(10년) 및 압력계 이치를 자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주택 내 거실 및 주방

에 손쉽게 설치가능 하며,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거나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생명을 살리고, 화재피해를 저감한 사례들이 있다. 2018년 4월 11일 충북 충주시 지현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고, 집 안에 있던 A씨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다시 일어났다.

이때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화재 발생 화재 발생'이 울렸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달려와 진화에 함께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했다.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선택이 아닌 의무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소중한 내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설치의무화를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부족으로 설치가 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지금 우리,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됐는지를 살펴보자. 설치돼 있지 않다면 하나의 가정에 한 대 이상 소화기, 방파다 감지기를 꼭 설치하길 바란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무서운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재욱 / 국성119안전센터 소방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 부 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